

# 통계 교육과 상담 - 현황과 과거 10년의 변천

송혜향\* 안윤기\*\* 이용구\*\*\* 조신섭\*\*\*\* 허명희\*\*\*\*\*

## 1. 머리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대학교에 있어서의 통계학과의 현황과 대학교육에서의 통계학과의 발전과정을 논의하고자 한다. 통계학과 설립 및 석·박사과정 개설이 지난 10년동안 두드러지게 많았으며 그 발전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본 논문에서 그 결과를 알리고 1970년대의 상황과도 비교하고자 한다. 1980년대에 들어서서 대학의 통계 교과과정에 대한 연구가 최지훈 외(1981)와 이용구(1989)에 의해 두차례 조사되었다.

통계학을 독립된 실체과학으로, 또는 과학적 연구방법론 내지는 보조과학으로 보는 여러 입장이 있음을 윤기중(1971)이 이미 서술하였다. 이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현대 통계학의 발전은 많은 경우에 실제 응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그 추진력을 얻었음을 간과할 수 없으며, 또한 통계학에서 확립한 통계이론과 통계 방법론의 실제 응용의 통로를 마련함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다시 말하면 통계학은 그 응용 대상을 포용하고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이 통계학의 존립의의로 중요하다고 하겠으며 이러한 의도에서 통계 상담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소수 대학이기는 하나 대학 환경에서의 통계상담은 우리나라에서 지난 5 - 6년 사이에 출범되어 이제 어느 정도 정착된 단계이며, 이들 대학에서의 통계상담의 운영방식, 상담 정규과목의 개설, 상담원 인력의 확보 및 상담 실적에 대해 알아보고자 설문조사한 바를 이에 보고하고자 한다.

---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통계학과

\*\*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 중앙대학교 응용통계학과

\*\*\*\*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

\*\*\*\*\*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 2. 통계 교육

우리나라에서 통계학과는 1960년대 초반에 5개 대학교에서 설립된 이후 1991년 4월 현재 모두 59개 대학, 61개 통계학과(두 대학교는 서울과 지방 캠퍼스에 모두 통계학과가 있음)가 설립되어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대학교의 57%(1989년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수는 104개임)에 해당된다. 통계학과의 설립배경은 경제사회의 발전에 따르는 경제사회문제의 수량분석의 필요성에 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1960년대에 설립된 5개의 통계학과중에서 4개 학과가 경상계열 대학에 속해 있어 졸업시에 경제학사를 수여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통계학은 수리적 이론과 다른 학문분야에의 응용방법이 상호보완적으로 발전되어 왔는데 이러한 통계학의 학문적 특성과 학과의 설립배경에 의하여 우리나라 대학교의 통계학과는 자연계열에 속하는 대학도 있고, 사회계열에 속하는 대학도 있다. 학과 명칭도 통계학과, 응용통계학과, 계산통계학과, 전산통계학과 등으로 다양하여 비교적 통일된 학과명을 갖는 다른 학문분야와는 다른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교 통계학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통계학과를 대상으로 1991년 3 - 4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현황조사에는 교과 과정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겠으나 이는 최지훈 외(1981)와 이용구(1989)에 의해 어느 정도 정리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사에서 생략하였다. 본 설문조사에서는 학과명, 학과설립년도, 전임교원수, 입학정원, 석·박사과정 개설년도, 석·박사과정 재학생 및 졸업생수, 석·박사과정 졸업생의 취업경향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대상학과인 59개 대학에, 61개 학과 중에서 모두 56개 학과가 설문에 응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은 우리나라 전체 대학교 중에서 통계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들을 지역별로 정리해 놓은 표이다. 서울에는 34개 대학중 18개 대학에 설치되어 있으며 전북지역의 5개 대학에는 통계학과가 모두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경기·인천지역 대학은 13개 대학중 3개 대학에 통계학과가 설치되어 있고 제주도에는 통계학과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통계학과는 60년대에 5개 대학, 70년대에 10개 대학, 80년대에 35개 대학, 90년대에 6개 대학에서 설립됨으로써 우리나라 대학교에 설립된 전체 통계학과 수의 73%가 80년도 이후에 설립되었음이 밝혀졌고, 학과가 분리하여 독립된 경우도 9개 학과가 된다[표 3].

[표 2]에는 학과 명칭과 학과가 소속된 대학에 대하여 정리하였는데, 학과명칭은 “통계학과”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응용통계, 전산통계, 계산통계의 순위이다. 소속대학은 전체적으로 9개 대학에 걸쳐서 분포되어 있고 그 중 자연과학대학이 가장 많으며, 큰 분류로는 이공계열 35개 학과, 사회계열 16개 학과, 단과대학 5개 학과 등으로 이공계열에 속한 경우가 63%나

되었다. 각 대학의 전임교수수의 분포가 [표 4]에 제시되었는데 평균 전임교수는 4명(평균은 4.11)이며, 중위값, 최빈값 모두 4명으로 1981년도에 조사된 윤기중(1981)에서 나타난 평균 3명보다 1명 많으나 다른 기초과학분야의 학과에 비하여 전임교수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에는 학부입학정원이 제시되었는데 입학정원이 40명인 학과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50명, 60명의 순위이다.

[표 1] 지역별 대학(교)수와 통계학과가 설치된 대학수

지역	서울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인천 경기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제주	계
대학수 <sup>1)</sup>	34	14	11	13	8	9	5	4	5	1	104
통계학과 <sup>2)</sup> 설치된 대학수	18	9	6	4	5	5	4	3	5	0	59

- 1) 경제기획원(1990), 한국통계연감에 기준함.
- 2) 서울과 지방 캠퍼스에 통계학과가 모두 있는 경우 서울 소재 대학만 계산하였음.

[표 2] 학과명과 소속 단과대학

학과	대학				
	전산통계	통계	응용통계	계산통계	계
문리	2	1			3
자연(자연과학)	3	22	1	1	27
상경(경상)		2	6		8
사회(사회과학)			2		2
경영			1		1
정경		1	1		2
이과	1	5	1		7
이공		1			1
단과대	2	3			5
계	8	35	12	1	56

[표 3] 학과 설립년도 (분리년도)

설립 분리여부	60-69	70-74	75-79	80-84	85-89	90-	계
	분리않함	5		4	17	15	6
분리함		1	5	1	2(6)	(3)	9(9)

( ): 분리된 학과수

[표 4] 전임교원수

교수수	1	2	3	4	5	6	7	8	계
학과수	4	6	10	17	8	4	4	3	56

[표 5] 학부입학정원

입학정원수	25	30	40	50	60	80	90	계
학과수	1	5	24	11	9	2	3	55 <sup>1)</sup>

1) 가톨릭 대학은 예외임.

대학원 석사과정은 현재 전체 통계학과 수의 거의 절반인 27개 대학에 개설되어 있으며, 특히 80년도 이후에 석사과정이 개설된 대학이 그 중 18개 대학이 되며, 박사과정은 10개 대학에 국한하여 개설되어 있다[표 6]. 총 석·박사과정 재학생수로는 대다수의 대학이 석사과정에는 15명 이내, 그리고 박사과정에는 5명 이내가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표 7]. 현재까지 배출된 석·박사과정 총 졸업자수가 [표 8]에 제시되었으며 석사과정 졸업자가 40명 이상 배출된 학교가 5개 대학이고 나머지 대학은 석사과정 졸업자가 20명 이하이다. 또한 박사과정 졸업자는 15명 이내이며 한 대학만이 30명의 박사를 배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원 석·박사과정의 학위 취득후 진로를 조사한 결과 석사과정의 경우에는 주로 진학, 유학, 연구소 취직, 대학시간강사로 나타났고, 박사학위 취득자의 경우에는 거의 모두가 대학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는 국내 통계학 박사가 일반연구소나 정부기관의 연구인력으로 흡수되지 않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표 6] 석·박사과정 개설년도

년 도		-69	70-74	75-79	80-84	85-89	90-	무응답	계
학 과 수	석 사	1	3	1	3	7	0	2	27
	박 사	1	0	3	2	2	1	1	10

[표 7] 석·박사 재학생수

학생수	0	1-5	6-10	11-15	16-20	21-25	26-30	31-35	계
석 사	4	1	5	3	2	1	1	0	24
박 사	0	6	0	2	1	0	0	1	10

[표 8] 석·박사 배출인원

학생수	0	1-5	6-10	11-15	16-20	26-30	46-50	76-80	100-	무응답	계
석 사	11	5	1	1	1		3	1	2	2	13
박 사	4	2	2	1		1					7

### 3. 통계상담

통계상담이 대학에서 정식 교과과정 혹은 체계적인 학과활동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은 이제 겨우 5년 남짓이므로, 여기서의 논의는 최근 5 - 6년간의 대학에서의 통계상담에 관한 것으로 국한된다. 통계상담은 통계학 교육의 측면 이외에도 대학에서의 통계전문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이 점에서 통계상담이 공식적인 채널로 정착된 대학은 일단 소정의 기능을 하고 있는 점에서 최소한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생각된다.

통계상담이라는 새로운 교과 및 제도를 운용하기 위하여 1986년경부터 안윤기(연세대)를 중심으로 송혜향(가톨릭대), 이용구(중양대), 조신섭(서울대), 허명희(고려대) 등이 여러 차례 모임을 가져 서로간의 의견 및 경험을 교환해 왔다. 이러한 것이 결실을 맺어 1987년 한국통계학회의 가을 정기총회에서 「통계상담」을 주제로 심포지움을 가진 바 있다. 이 심포지움에서 안윤기(연세대)는 “통계적 오류와 대응방안”(김병수 외, 1987)을 발표하

였으며 이는 연세대학교 경영학 석사학위논문에서의 통계적 방법론의 사용 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내용이었다. 또한 허명희는 “대학에서의 통계상담 교육”이란 제목하에 통계상담 교육의 목표, 조직, 특성에 관한 일반론을 발표하였다. 송혜향은 의학분야의 통계상담 실태에 관한 현황과 전망에 관한 발표를 하였고, 이어서 중앙대학교(이용구), 서울대학교(조신섭), 고려대학교(김기영)의 통계상담 실태에 관한 보고 형식의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 심포지움은 대학에서의 통계상담의 위상에 관한 입장이 일단 정리되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었다. 그후 통계상담 분야에 관한 발표 및 토의는 1987년 발족된 「통계교육상담연구회」에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회는 안윤기가 발기하였고 송문섭(서울대)을 중심으로 하여 그동안 네 차례 봄·가을에 통계교육토론과 상담사례 발표모임을 가진 바 있다.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등에서의 통계상담운영방식은 각기 학내의 상황에 맞추어 개발되어 왔기 때문에 공통점도 있으나 상이한 점도 많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운영방식 즉, 2인 이상 교수의 담당지도(team teaching)하에 2인의 선임-후임 통계상담자(학생)로 구성된 상담조가 적절한 예비 통계교육후에 통계상담을 진행하면서 지도교수와 상담조원은 1주 1회의 정기적 그룹 회의(group meeting)를 갖는 방식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통계상담의 운영경험, 문헌적 고찰, 통계상담의 예비교육에 관한 국내의 참고문헌으로는 허명희(1986), 노은영·조신섭(1989), 최병선 외(1990)가 있다.

위에서 언급된 4개 대학 외에도 우리나라 전체 대학의 상담활동에 대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전국 61개 통계학과의 상담활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1991년 3월 8일부터 4월 19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본 논문의 끝에 설문조사 자료를 첨부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56개 대학 중에서 17개 대학이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11개 대학에서 상담과 관련된 과목을 정규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다 [표 9]. 강의 명칭은 주로 통계상담(및 실습) I, II 로 일컬어지며 2학기에 걸친 과목이 보편적이며, 이 외에도 통계연습 또는 통계자료분석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상담원수와 그 구성을 보면, 대부분의 상담실이 석사과정 재학생 또는 졸업생으로 구성된 1 - 2 명의 상주상담원을 두고 있으며, 그 외에는 상담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원생 또는 학부생을 비상주상담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표 10]. 특히 상주상담원이 전혀 없는 학교도 4개 대학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상담업무의 접수, 연락 및 상담과 관련된 일상업무의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상주상담원의 구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석·박사과정의 개설여부와 상담실 운영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는 상담실이 운영되는 17개 대학중 학부과정까지만 개설되어 있는 대학이 5개 대학인 반

면에 상담실이 없는 39개 대학중 24개 대학에 학부과정까지만 개설되어 있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표 9].

지난 1년간의 각 대학에서의 상담실적을 [표 11]에서 보면 대부분의 대학이 석사, 박사논문 및 교수연구를 포함하여 총 10건 내외의 상담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로 석·박사 논문과 관련된 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교수연구 및 외부에서 의뢰된 상담의 회수는 극히 적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아직까지는 교내의 상담에 치중하고 있음을 본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에서 상담체계가 확립된 역사가 짧은 이유 등 여러가지로 설명이 가능하겠으나 전문적인 상담원의 부족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된다. 예를 들어 가톨릭의대의 경우를 보면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에 상담실이 있는 이유로, 전임교원 2인과 조교 1인의 상주상담원과 2인의 비상주상담원이 상담을 담당하고 있어, 81건의 교수연구에 대해 상담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연세대의 경우도 석사를 마친 후 외국유학을 준비중인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3인의 상담원이 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어 지난 1년간 100건의 석사 논문이외에도 10건의 교수연구에 대한 상담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외의 대학의 경우는 주로 석사과정 재학생들이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로, 전문성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학업 등의 이유로 상담실을 비우는 경우가 많아 상담의뢰인들에게 신뢰를 주기 곤란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운영하는 상담실을 홍보하고 있는 학교는 6개 대학이 되며 정규과목이 아닌 통계 Package 특강을 실시하는 학교가 10개 대학이었다. 지난 1년간 상담회수가 10회를 넘는 대학의 경우는 통계 Package에 대한 특강이 개설되어 있어 상담실에 대한 홍보효과도 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 11].

[표 9] 과정 개설과 상담실 설립여부

상담실 유무 과정개설	무	유	계
학부 이하	24	5	29
석사 이하	11	5	16
박사 이하	4	7	11
계	39	17	56

현재 통계상담이 비교적 순탄하게 정착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대학에서 통계상담이 점진적인 발전을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분석·평가 하건데 다음과 같다. 첫째 요인은 대부분의 대학원생들이 대학원

[표 10] 상담원수

비상주 상주	0	1	2	3	4이상	계
0				1	3	4
1	3	1	1			5
2	2		2			4
3		1	1			2
4 이상					1	1
계	5	2	4	1	4	17

[표 11] 지난 1년간의 학교별 상담종류, 회수 및 석·박사과정 개설여부

학 교	상담 종류				계	홍보 여부	특강 개설	석·박사과정 개 설
	석사	박사	교수	기타				
가톨릭	24	16	81	1	122		*	
강릉	3	0	3	2	8			
건국	5	3	2	2	12		*	*
경남 <sup>1)</sup>	1	1	0	2	4		*	*
경북	20	7	5	1	33	*	*	*
고려	20	10	0	0	30	*	*	*
동국	4	2	1	0	7			*
목원	2	3	2	3	10	*	*	
서울	24	7	0	2	33	*	*	*
성신	2	1	4	5	12			*
연세	100	6	10	1	117		*	*
이화	0	0	0	0	0			*
전주	4	2	0	0	6	*	*	
중앙	5	0	0	1	6	*	*	*
청주	2	3	1	2	8			
충남	2	2	2	0	6			*
한림	1	0	5	1	7			
효성	2	0	1	0	3			*

1)은 상담실이 개설되지 않은 학교임

(석사과정) 종합시험, 석사학위논문, 박사과정 입학시험으로 인해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통계상담에 능동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둘째 요인은



현재까지의 학부 및 대학원 교과과정이 다양하지 못하여 여러 방법론의 숙지를 요구하는 통계상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셋째 요인은 통계상담실이 학과와 연구소 사이에서 확실한 위치를 잡지 못하여 일관성 있고 지속적이며 효율적인 관리가 없는 채로 상담실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점에서 가톨릭대학만은 예외인데, 이 대학의 경우 비교적 좋은 통계상담전용 전산시설과 상주 교수 2인, 조교 1인, 비상주 조교 2인 등의 인적 조직으로 학내적으로 제도화된 통계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였다.

우리들은 향후 10년의 대학내 통계상담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제시를 하고자 한다.

첫째, 통계학계 및 통계학과 내에서 응용통계의 중요성 및 학술적 가치에 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여건이 성숙된다면 부수적으로 현재 종합시험 및 석사학위논문 등에서 너무 작은 비중을 갖고 있는 응용통계에 적절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통계학 교수들도 타분야와의 학제적 공동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여건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여러 통계적 방법론이 통합된 교과가 개발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과 같이 한 교과에 한 방법론을 수리적으로 깊이있게 다루는 방식보다는 한 교과에 여러 방법론을 두루 개괄하고 적용사례를 다루는 방식이 통계학의 응용 측면에서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이다. 최근 몇개 대학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한 커리큘럼 개편을 하였는데 매우 고무적인 일로 생각된다.

셋째,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통계학회나 여러 대학의 공동주관으로 특별한 통계 방법론에 대한 강좌(tutorial lecture)가 빈번해 진다면 새로운 방법론과 정보의 학교간 횡적 교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통계상담 연구회에서는 1990년 하반기 모임에서 이러한 취지의 강좌를 처음 시도하였다.

넷째, 서로간에 공유할 수 있는 자료뱅크 및 사례집의 발간이다.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나온 문제들에 관한 우리의 자료를 수집·공개하고 적절한 형태로 문서화된 자료설명이 부연된 자료뱅크를 만들 수 있을 때 통계상담의 준비교육에는 물론 통계학의 대학교육 일반에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통계상담사례집도 통계상담 경험의 간접적 축적을 위한 매체가 될 뿐만 아니라 예비통계전문가들의 쓰기 능력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서울대학교는 1986-87년 통계상담사례집과 1988년 통계상담사례집 등을 발간한 바 있고 고려대학교는 1986년 이래 1년에 두 권씩의 사례집을 계속 발간하고 있다.

#### 4. 맺음말

대학이전의 과정인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에 반영된 통계학 교육에 대한 조사가 윤기중(1981)에 의해 이루어졌다. 초, 중·고등 교과과정에서 배우는 초보적인 확률 및 통계는 수학교재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수학교재에 실린 확률 및 통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토론이 필요하다. 통계 교육자들은 오래전부터 느껴왔으나 이러한 조사를 시행하는 데는 여러 교수들의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일이라 쉽사리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좀 더 균형있고 후일 대학에서의 통계학 교육과 잘 연결된 초·중고등 통계학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들 교과과정의 검토가 촉구되는 바이다.

본 논문에서 언급한 통계상담은 대학환경 밖에서도, 예를 들어서 정부기관, 연구소 등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응용분야에서의 통계상담에 대한 파악이 현 시점에서 불가능하였고 대학이라는 한정된 대상만을 조사하게 되었다. 앞으로 통계상담에 대한 더욱 광범위한 조사가 요구되는 바이다.

#### 참 고 문 헌

1. 윤기중(1981). 한국통계의 현황과 장래-통계교육, 통계학연구, 제10권, 16-23.
2. 최지훈외(1981). 통계학의 모형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통계학연구, 제10권, 164-177.
3. 허명희(1986). 통계상담의 운영과 경험:고려대학교의 경우, 응용통계, 제1권 제1호, 45-60.
4. 김병수외(1987). 통계의 오용과 효율적 이용에 관한 연구, 산업과 경영, 제24권 제2호, 3-37.
5. 이용구(1989). 우리나라 대학교 통계학과의 교과과정분석, 응용통계연구 제2권 제2호, 1-8.
6. 노은영·조신섭(1989). 통계상담에 관한 고찰, 응용통계연구, 제2권 제2호, 9-24.
7.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1990). 한국 통계연감, 382-386.
8. 최병선외 공역(1990). 통계상담-인간적 측면, 박영사.

## 통계학회 교육상담연구회 설문조사결과 요약

Column : 설명

1-2 : 대학명

3-4 : 소속대학 이공(01)자연(02)사회(03)정경(04)상경(05)

5-6 : 학과명 통계(01)응통(02)계통(03)전통(04)

7-8 : 학과개설년도(분리된 경우는 분리년도)

9 : 분리여부 분리(1) 분리 안됨(0)

10-11: 전임교원수

12-13: 학부입학정원

14-15:

16 : 석사과정 개설여부 개설(1) 미개설(0)

17 : 박사과정 개설여부 개설(1) 미개설(0)

18-19: 석사과정 개설년도

20-21: 박사과정 개설년도

22-23: 석사과정 재학생수

24-25: 박사과정 재학생수

26-28: 석사과정 졸업생수

29-30: 박사과정 졸업생수

31

32 : 통계상담실 개설여부 개설(1) 미개설(0)

33 : 통계상담관련과목 개설여부 개설(1) 미개설(0)

34 : 통계상담관련과목 개설수

35-42: 상주상담원수

학부(37-38) 석사(39-40) 박사(41) 조교(42) 교수(43) 기타(44)

43-50: 비상주상담원수

학부(45-46) 석사(47-48) 박사(49) 조교(50) 교수(51) 기타(52)

51-59: 지난 1년간 상담회수

석사(53-55) 박사(56-57) 교수(58-59) 기타(60-61)

60 : 상담실 홍보여부 홍보(1) 미홍보(0)

61 : 패키지 특강 개설여부 예(1) 아니오(0)

62

63 : 학과 전산실 유무 유(1) 무(0)

64 : 상담실과의 관계 무관(0) 동시운영(1) 상담실이 없음(2)

65 : 전산소에서의 상담유무 유(1) 무(0)

66 : 타학과에서의 상담유무 유(1) 무(0)

67 : 개인적으로 상담유무 유(1) 무(0)

0102018510200	00				100000011100001100002416810101	11000
0201018300430	00				1110000000000000014000300030200	11000
0302017500540	1080	02	006	0		121
0405028100450	1088	04	004		112000200000000002000503020201	11000
0505028000450	00				0	101
0602048400450	00					00101000200 12001
0702017600660	118083121604712				111000000000010000002007050111	111
0802018810440	00				0	12101
0902048400690	1090	04	000	0		0 011
1002017800790	1084					10001
1104016300780	11	180500000			112000500000010000002010000011	11101
1205028100350	1091	00	000	0		11001
1302048200340	1089	02	000	0		101
1402018000440	1089	01		0		12 1
1502018800340	00				0	001
1602019000160	00				0	12001
1702016200440	117084151207601				100000200000000000000402010000	11001
18 018800450	00				0	10001
1905028200550	00				0	02001
2003028000440	00				112020001000000002000203020311	11001
2102048300530	1091	00	000	0		02101
2202018810640	118589060400400			0		11001
23 018900340	00				0	12000
2402039110825	117575273216430				112000100000001000002407000211	10110
2502028900240	00				0	02000
2603028800240	00				0	1
2705016400640	117279091205006			0		10111
2802018000440	1090	05	000	114		00201040500 12001
2902029000240	00				0	02000
3002018800340	00				0	121
3102049000160	00				0	1
3202018800440	00				0	12001
3302048300450	1090	02	000	0		12001
3402019010330	00				01	001
3505026600860	116666210510004				112000000030000000110006100101	12002
3602018900140	00				0	02001
3702018100560	1090	07	000	0		121

3802019100130	00			0					02100
3902018800306	00			0					12000
4002018800360	1090	10			10000000000012000000				11001
4102019010340	00			0					10001
4202018700550	1191	030500004		0					1 1
4302019000440	00			0					0 0
4401018910360	110090020100100			0					
4505018100390	00				111000000010000000000402000011				111
4602048100550	10	07	015	0					00101
4704026400430	117479150404810				111000200000000000000500000111				11111
4802019000240	00			0					12001
4905027900450	00				113000000000000003000203010201				02001
5002018710740	118286050701600				114000010000002000000202020000				11101
5102018710540	1088	03	000	0					02 1
5205028500440	00			0					12111
5302018600550	1090	00	000		100000001000000000000100050100				11000
54 048800240	00			0					12000
55 048400880	00			0				10	12001
5602018700460	1089	02	001		100000100000000000000200010000				11000

대학코드 09 : 주 50, 야 40

대학코드 10 : 주 50, 야 40

대학코드 45 : 주 50, 야 40